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정답 및 해설

01. ① 02. ③ 03. ③ 04. ④ 05. ④ 06. ⑤ 07. ③ 08. ② 09. ② 10. ②
 11. ③ 12. ② 13. ⑤ 14. ③ 15. ⑤ 16. ③ 17. ⑤ 18. ① 19. ③ 20. ①
 21. ⑤ 22. ① 23. ④ 24. ② 25. ⑤ 26. ⑤ 27. ② 28. ⑤ 29. ④ 30. ⑤
 31. ② 32. ② 33. ① 34. ④ 35. ③ 36. ⑤ 37. ⑤ 38. ④ 39. ① 40. ②
 41. ③ 42. ④ 43. ① 44. ③ 45. ④

[1~3] 화법

1. 말하기 전략 평가

정답해설 : 방송 진행자는 ‘친구를 돕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신다는 거네요.’라고 하면서 사연 내용을 정리하고, 사연 신청자의 마음에 공감하면서 ‘저도 □□ 님처럼 안타깝네요.’라고 말하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사연 신청자는 스스로를 못났다고 생각하는 친구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궁금해하였고, 방송 진행자는 ‘장점 말해 주기’와 ‘감정 헤아려 주기’ 방법이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사연 신청자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고 있다. 그러나 방송 진행자가 다음 방송을 예고하고 있지는 않다. ③ 방송 진행자가 사연 내용을 선정하게 된 동기를 밝히고 있지는 않다. ④ 방송 진행자는 자신을 심리 상담가라고 밝히고 있지만 자신의 과거 경력을 소개하며 전문성을 부각하고 있지는 않다. ⑤ 방송 진행자가 방송의 시작과 끝에 질문을 던지고 있지만, 사연에 대해 상담하는 중에 질문을 던지고 있지는 않다.

2. 말하기 계획 평가

정답해설 : 방송 진행자는 사연 속 친구에 대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을 느끼고, 사소한 실수에도 자신을 탓하며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존감이 낮아진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그러나 사연의 문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유사한 문제 상황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방송 진행자는 ‘자신의 능력과 가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태도를 나타내는 말을 자존감이라고’ 한다고 밝히고 있다. ② 방송 진행자는 자존감이 낮은 원인 중 일반적으로 알려진 두 가지 원인에 대해 말하고 이를 사연 속 친구의 상황에 적용하고 있다. ④ 방송 진행자는 친구의 긍정적인 면들을 말해 주라고 하면서 ‘장점 말해 주기’의 방법을 안내하고, 그렇게 하면 친구가 자신을 남과 비교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⑤ 방송 진행자는 ‘감정 헤아려 주기’와 관련

하여 친구의 감정을 이해해 주는 말의 구체적 예를 제시하고, 그렇게 하면 친구가 스트레스를 덜 받고 자책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3. 반응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청취자 3’은 딸아이의 자존감이 향상되도록 딸아이에게 긍정적인 면들을 말해 줘야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방송에서 언급한 방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권유하고 적용할 것을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앞으로 실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것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청취자 1’은 자존감이 낮다는 자신의 문제 상황 때문에 방송을 들었다며 방송을 들은 목적을 언급하고, 방송에는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청취자 1’은 방송 내용이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② ‘청취자 2’는 자존감을 높여 주려면 자기만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해 주어야 한다고 진술하여 자신이 방송을 이해한 내용에 대해 밝히고 있다. 또한 방송에서 안내하지 않은, 가능한 목표를 세워서 도달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 제시하고 그 방법이 자존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 효과를 예측하고 있다. ④ ‘청취자 4’는 방송에서 제시한 방법을 연령대가 다른 대상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고 있다. ⑤ ‘청취자 5’는 ‘감정 헤아려 주기’ 방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직설적으로 말하는 자신의 언어 습관을 반성하고 있다.

[4~7] 화법, 작문

4. 고쳐 쓰기의 적절성

정답해설 : ‘학생들’이 ‘응원 메시지를 가슴에 달고 뛰었다.’는 (가)의 [본문]에 대해 (나)에서 ‘학생 2’는 ‘선생님들도 응원 메시지를 직접 써서 가슴에 달고 뛰셨’다는 내용이 빠졌다고 지적하고, ‘학생 3’은 [본문]에 이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그러나 ㉠에서는 학생들이 응원 메시지를 ‘직접’ 썼다는 내용만 추가하기로 계획하였을 뿐, ‘선생님들도 응원 메시지를 직접 써서 가슴에 달고 뛰셨’다는 내용은 여전히 반영되지 않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나)에서는 (가)의 [표제]를 중심 소재가 드러나도록 다시 작성하기로 했다. ㉡에서 이를 반영하여 중심 소재인 ‘사제동행 마라톤’을 [표제]에 제시했으므로 적절하다. 또한 ‘화합’이라는 행사의 의미를 드러낼 수 있도록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

기로 한 논의를 반영하여 ㉓에서 ‘작은 물방울들 하나 되어’라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수정하기로 계획했으므로 적절하다. ㉔ (나)에서는 (가)의 [전문]에 육하원칙 중 빠진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㉕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어디에서’에 해당하는 ‘△△공원 일대에서’를 추가하여 고쳐 쓰기로 계획했으므로 적절하다. ㉖ (나)에서는 (가)의 내용을 사실에 맞게 수정하기로 했고, ㉗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선생님은 1만 원씩, 학생은 5천 원씩의 성금’을 냈다고 수정하기로 계획했으므로 적절하다. ㉘ (나)에서는 (가)의 [본문]에 불필요하게 중복된 내용의 문장을 삭제하기로 했고, ㉙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공원을 찾은 많은 시민들은’과 중복된 내용인 ‘이날 많은 시민들이 △△공원을 찾았다.’를 삭제하기로 계획했으므로 적절하다.

5. 내용 생성의 적절성

정답해설 : (나)에서 ‘학생 1’은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화합’을 드러내는 내용을 담기로 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행사를 주최하면서 어려웠던 점’에 대한 학생회장의 인터뷰를 넣자고 했다. ‘학생 2’는 이와 관련하여 ‘행사 이후 결과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면 좋겠다고 제안했고 ‘학생 3’은 이를 모두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할 때 (가)의 마지막 부분에 ‘장소 섭외가 힘들었지만 뜻 깊은 경험이었다.’라고 행사를 주최하면서 어려웠던 점에 대한 학생회장 인터뷰를 포함하고, ‘선생님과 학생들이 한마음이 되어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쳤’다는 ‘화합’을 드러내는 내용과 ‘모금된 성금은 K 군 가족에게 전달’했다는 행사 이후 결과에 대한 내용을 모두 포함한 ㉔가 가장 적절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㉑ ‘행사 홍보가 힘들었지만’과 같이 행사를 주최하며 어려웠던 점에 대한 학생회장 인터뷰를 포함하고,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 달린’ 행사였다는 ‘화합’을 드러내는 내용을 포함하였으나, 행사 이후 결과는 제시하지 않았다. ㉒ ‘준비 기간이 짧아서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과 같이 행사를 주최하며 어려웠던 점에 대한 학생회장의 인터뷰를 포함하고, ‘성금’을 ‘K 군 가족에게 전달’했다는 행사 이후 결과에 대한 내용을 포함했으나, ‘화합’을 드러내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㉓ ‘선생님과 학생들이 한마음으로 참여’했다는 ‘화합’을 드러내는 내용과 ‘K 군 가족’이 ‘성금’을 전달받았다는 행사 이후 결과를 포함했으나, 학생회장의 인터뷰를 제시하지 않았다. ㉘ ‘선생님과 학생들이 함께’ 참여했다는 ‘화합’을 드러내는 내용과 ‘성금’을 ‘K 군 가족에게 전달’했다는 행사 이후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어려운 친구를 생각하며 기쁘게 완주했다.’라는 학생회장의 인터뷰에는 행사를 주최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드러나지 않았다.

6. 토의의 내용과 전략 평가

정답해설 : ㉠은 ‘기사문이 실릴 지면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추가로 작성할 내용은 많지 않아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부정 의문문을 사용한 발화이다. 이는 ‘글의 분량도 생각해야’ 한다고 언급한 ‘학생 1’의 의견에 대해 동의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지, 상반된 의견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학생 1’은 [표제]를 수정하자고 제안하고, ‘학생 2’는 이 제안에 대해 ㉠에서 [표제]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수정해야 하는지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학생 1’에게 요청하고 있다. ② [표제]에 참가 인원수를 적자는 ‘학생 2’의 제안에 대해 ㉠에서 ‘학생 1’은 그 제안을 수용할 경우 기사문의 의도와 달리 행사 규모를 강조하게 된다고 판단하여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라고 반대 의사를 전달하고 있다. ③ ‘학생 3’은 ㉠에서 ‘선생님과 학생이 한마음으로 행사에 참여한 모습’을 표현하려고 했다고 하며 화합의 모습을 본문에 담고자 한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끝부분에 ‘어때?’라는 질문을 던져 자신의 의도가 본문에 나타나는지에 대한 상대의 생각을 확인하고 있다. ④ ‘학생 1’은 ㉠에서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화합을 드러내는 내용을 담기로 하지 않았어?’라고 질문을 던진다. 뒤이어 ‘학생 3’이 지난 회의에서 본문 내용에 대해 해당 논의를 한 것을 떠올리고 있으므로, ㉠은 본문의 마지막 부분의 작성에 대해 논의한 것을 상대방에게 환기하는 발화에 해당한다.

7. 담화의 유형과 성격 파악

정답해설 : ‘학생 3’은 [A]의 첫 번째 발화에서 [전문]에 빠진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는 ‘학생 1’의 의견을 수용하고, 두 번째 발화에서 행사에 대한 중심 소재를 [표제]에 드러내야 한다는 ‘학생 1’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 또한 세 번째 발화에서 [표제]에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자는 ‘학생 1’의 의견을 수용하고 있다. [B]에서 ‘학생 2’는 [본문]에서 ‘선생님들도 응원 메시지를 직접 써서 가슴에 달고 뒀’다는 내용이 빠졌음을 지적하고, ‘실제 사실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다뤄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학생 3’은 [B]의 네 번째 발화에서 이 의견을 수용하여 [본문]의 내용을 수정하기로 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A]에서 참가 인원수를 제시하자는 ‘학생 2’의 제안에 대해 ‘학생 1’은 그러할 경우 기사문의 의도를 살리기 어려우므로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행사의 의미를 드러내자는 제안을 한다. 이처럼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학생 3’은 ‘학생 1’이 제안한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자는 방안을 수용하였으나, 양쪽에 절충안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② [B]에서 ‘학생 2’는 자신이 담고자 의도한 내용이 [본문]에 드러났는지 확인하는 ‘학생 3’의 질문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하고 있지만, 다른 사실을 빠뜨렸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여 비판하고 있다. 또한 세 번째 발화에서 ‘정보를 누락하면

안' 된다고 하여 '학생 3'의 의견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학생 1'은 '학생 2'의 이러한 의견을 지지하고 있으나, '학생 2'가 '학생 1'의 의견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을 드러낸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④ '학생 1'은 [B]에서 실제 사실을 정확히 다뤄야 한다는 '학생 2'의 의견에 대해 그 의견이 타당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반면 [A]에서 '학생 1'은 '참가 인원수를 적자.'는 '학생 2'의 의견에 대해 기사문의 의도를 들어 반대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⑤ [A]에서 '학생 2'는 '행사의 의미를 비유적 표현을 활용'해서 써 보자고 제시한 '학생 1'의 의견을 점검하여 '한눈에 기사 내용을 알아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드러내고 있다. [B]에서는 '학생 2'가 제시한 '정보를 누락하면 안' 된다는 의견에 대해 '학생 1'이 동의를 표하고 있으나, 이것은 '학생 1'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 아니며 그에 대한 '학생 2'의 의견도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학생 2'가 '학생 1'의 의견을 점검했다고 할 수 없다.

[8~10] 작문

8. 글쓰기 전략

정답해설 : ㉠을 고려하여 '학생의 글'의 1문단에 로봇세 도입의 목적이 제시되어 있다. '로봇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지원하거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예산을 마련하자는 것이 로봇세 도입의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학생의 글'에서 로봇세 도입의 목적을 로봇 사용으로 인한 편안한 삶과 관련지어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정답 ㉡

[오답피하기] ㉠ ㉡을 고려하여 '학생의 글'의 1문단에 로봇세의 개념이 설명되어 있다. '로봇을 사용해 이익을 얻는 기업이나 개인에 부과하는 세금'이라는 로봇세의 개념에는 로봇세의 납부 주체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 ㉠을 고려하여 '학생의 글'의 1문단에 로봇세 도입의 목적이 제시되어 있다. '로봇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지원하거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예산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로봇세 도입의 취지를 드러내고 있다. ㉣ ㉢을 고려하여 '학생의 글'에서 로봇세 도입을 반대한다는 주장을 밝히고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학생의 글'의 3문단에는 로봇세를 도입하면 기술 개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문가의 견해와 함께 로봇세 도입으로 인한 부정적 측면이 제시되어 있다. ㉤ ㉣을 고려하여 '학생의 글'의 4문단에 산업 혁명을 거치면서도 산업 전반에서 일자리는 증가해 왔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이는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로 제기된 로봇세의 필요성에 대한 반박으로, 로봇세 도입을 반대하는 주장의 근거에 해당한다.

9. 자료 수집, 활용의 적절성

정답해설 : ‘학생의 글’의 2문단에 ㉞의 사례로서 모바일 뱅킹과 티켓 자동 발매기가 언급되어 있다. 모바일 뱅킹과 티켓 자동 발매기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로봇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다. ㉞의 사례로 제시된 모바일 뱅킹과 티켓 자동 발매기는 과세의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는 문제를 지적하기 위한 것이지만 로봇세가 중복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㉞를 통해 사람들이 로봇이 일자리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학생의 글’의 4문단에 ‘로봇의 사용으로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이유로 로봇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는 내용과 연결된다. ③ ‘학생의 글’의 3문단에 로봇 기술 개발의 경쟁이 더욱 뜨거워질 것이라는 예측이 제시되어 있다. 로봇 기술의 상당수가 특허권이 인정되는 고부가 가치 기술이라는 것이 그 이유인데, 이는 ㉞의 내용을 활용한 것이다. ④ ㉞와 관련하여 ‘학생의 글’의 3문단에 로봇 기술 개발 경쟁에 뒤처짐으로써 막대한 금액이 외부로 유출되는 국가적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⑤ ㉞에 제시된 전문가의 의견 가운데 로봇세가 로봇 기술 개발에 악영향을 준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학생의 글’의 3문단에 로봇세 도입으로 인한 로봇 수요 감소, 그에 따른 기술 개발 의지 약화 등의 문제가 제시되어 있다.

10. 내용 생성의 적절성

정답해설 : [A]는 산업 혁명을 거치면서도 일자리는 오히려 증가했으므로 로봇 사용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은 낮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보기>는 로봇의 생산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면서 로봇 사용으로 대체될 수 있는 일자리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A]와 <보기>는 로봇 사용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대해 상반된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기>를 근거로 [A]에 대해 반박한다면, 로봇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의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A]의 예측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해야 한다. <보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과 같이 로봇의 생산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된다면 일자리는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과거 사례만으로 일자리가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A]의 예측에 대해 반박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보기>는 로봇 기술을 발달시켜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을 모색하자는 내용이 아니다. 또한 [A]는 로봇의 사용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므로 일자리를 늘리자는 것이 [A]에 대한 반박이 될 수 없다. ③ <보기>는 로봇의 생산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고 있다고 했지 인간 노동자의 생산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하지 않았다. 또한 인간 노동자의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는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A]에 대한 반박이 될 수 없다. ④ <보기>에 따르면 로봇

의 생산성이 향상되면 인간의 일자리는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로봇세를 도입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고 일자리 감소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또한 일자리 감소를 막을 수 있다는 내용이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A]에 대한 반박이 될 수 없다. ⑤ <보기>는 로봇의 생산성 증가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또한 산업혁명의 경우와 같이 로봇으로 인해 인간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A]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 [A]와 같은 입장에 해당한다.

[11~15] 문법

11. 음운의 개념, 특성 파악

정답해설 : [A]에서 ‘쉬리-소리’, ‘마루-머루’, ‘구실-구슬’은 각각 최소 대립쌍이다. 이를 통해 음운 ‘ㄱ, ㄴ’, ‘ㅏ, ㅑ’, ‘ㅣ, ㅡ’를 추출할 수 있다. [B]의 단모음 체계에 따르면 ‘ㄱ’은 고모음, 전설 모음, 원순 모음이고, ‘ㄴ’은 중모음, 후설 모음, 원순 모음이다. 또한, ‘ㅏ’는 저모음, 후설 모음, 평순 모음이고, ‘ㅑ’는 중모음, 후설 모음, 평순 모음이다. 끝으로, ‘ㅣ’는 고모음, 전설 모음, 평순 모음이고, ‘ㅡ’는 고모음, 후설 모음, 평순 모음이다. 따라서 추출된 6개의 모음을 혀의 높낮이에 따라 분류하면 ‘3개의 고모음, 2개의 중모음, 1개의 저모음’을, 혀의 앞뒤에 따라 분류하면 ‘2개의 전설 모음, 4개의 후설 모음’을, 입술의 모양에 따라 분류하면 ‘4개의 평순 모음, 2개의 원순 모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③

추출한 음운	혀의 높낮이			혀의 앞뒤		입술 모양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ㄱ	✓			✓			✓
ㄴ		✓			✓		✓
ㅏ			✓		✓	✓	
ㅑ		✓			✓	✓	
ㅣ	✓			✓		✓	
ㅡ	✓				✓	✓	
계	3개	2개	1개	2개	4개	4개	2개

[12~13] 국어사적 사실을 통한 현대 국어의 현상 이해

지문해설 : 이 글에서는 현대 국어의 일관되지 않은 현상을 이해하는 데 국어사적 사실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음을 전제로, 국어사적 사실에 기반을 두고 현대 국어에서 ‘ㄹ’ 받침 명사가 합성어를 형성할 때의 일관되지 않은 양상을 설명하고 있다. 먼저, 합성어 형성 시 ‘ㄹ’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에 대해 중세 국어에서 관형격 조사로 쓰이던 ‘스’이 현대 국어에서 그 기능을 잃고 합성어 내부의 사이시옷으로만 흔적이 남았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합성어 형성 시 ‘ㄹ’이 탈락하는 경우는 중

세 국어에서 합성어 형성 시 ‘ㄴ, ㄷ, ㅅ, ㅈ’ 등으로 시작하는 명사 앞에서 받침 ‘ㄹ’이 탈락하는 규칙이 적용된 경우임을 설명하고 있다. 끝으로, 합성어 형성 시 ‘ㄹ’이 ‘ㄷ’으로 바뀌는 경우는 국어의 변화 과정을 고려한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 것임을 중세 국어, 근대 국어에서의 사례를 통해 보이고 있다.

[주제] 현대 국어의 일부 합성어들에 대한 국어사적 사실을 통한 설명

12. 단어의 구조 파악

정답해설 : ‘ㄹ’ 받침의 명사가 합성어를 형성할 때, ㉠은 ‘ㄹ’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은 ‘ㄹ’이 탈락하는 경우, ㉢은 ‘ㄹ’이 ‘ㄷ’으로 바뀌는 경우이다. <보기>에서 ㉠에 해당하는 사례는 ‘쌀가루(쌀+가루)’, ‘술방울(술+방울)’이고, ㉡에 해당하는 사례는 ‘무술(물+술)’, ‘푸나무(풀+나무)’이며, ㉢에 해당하는 사례는 ‘설탕(설탕+달)’이다. ‘نال알(날+알)’은 ‘ㄹ’ 받침의 명사가 합성어를 형성한 경우가 아니다. **정답 ㉡**

13. 국어의 변화 과정 이해

정답해설 : 근대 국어로 오면서 받침 ‘ㅅ’과 ‘ㄷ’의 발음이 구분되지 않게 되었다는 제시문의 설명을 통해 볼 때, ‘숲 → 슷’, ‘뭇 → 뭇’의 과정에서 ‘ㅅ’의 발음이 서로 다른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이유에 근거하여 이 제시문에서는 ‘뭇’을 ‘뭇’으로 적는 것처럼 ‘숲’도 ‘숲’이 아니라 ‘스’로 적는 것이 국어의 변화 과정을 고려한 관점에 부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답 ㉤**

[오답피하기] ㉠ 중세 국어에서 ‘술’, ‘저’, ‘이틀’은 모두 자립 명사이다. [자료]의 ‘중세 국어의 예’ 중 첫 번째 예와 제시문의 ‘이틀’에 대한 설명 부분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반면 현대 국어의 ‘술’은 ‘밥 따위의 음식물을 손가락으로 떠 그 분량을 세는 단위’의 뜻을 지니는 의존 명사이다. [자료]의 ‘현대 국어의 예’ 중 첫 번째 예에서 ‘술’이 자립 명사로 쓰이지 않음을, 세 번째 예에서 ‘술’이 의존 명사로 쓰임을 확인할 수 있다. ㉡ [자료] ‘중세 국어의 예’의 두 번째 예 중 하나인 ‘수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자료] ‘중세 국어의 예’의 두 번째 예 중에서 ‘숲 근’, ‘젓 가락 근’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제시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중세 국어의 ‘이틀 날’ 혹은 ‘이틀 날’이 근대 국어의 ‘이튿날’을 거쳐 현대 국어의 ‘이튿날’로 적히는 것은 국어의 변화 과정을 고려한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근대 국어 ‘스가락’이 현대 국어 ‘손가락’으로 적히는 데에도 적용된다.

14. 문장의 짜임새 파악

정답해설 : ㉡의 안은문장은 ‘동주는 별을 응시했다.’이고 안긴문장은 ‘별이 반짝이다.’이다. 따라서 ‘별을’은 안은문장의 목적어이며, 안긴문장의 목적어는 아니다. ㉢의

안긴문장에는 목적어가 없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④의 서술어 '삼았다'는 주어 이외에도 목적어 '위기를'과 부사어 '좋은 기회로'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② ⑤의 안긴문장은 '바다가 파랗다.'이고, 안긴문장은 '눈이 부시다.'이다. 따라서 '바다가'와 '눈이'는 각각 '파랗다'와 '부시다'의 주어이다. ④ ④의 안긴문장은 '기회가 좋다.'이고, ⑤의 안긴문장은 '별이 반짝이다.'이다. 따라서 '좋은'과 '반짝이는'은 안긴문장의 서술어이다. ⑤ ⑤의 '눈이 부시게'는 부사절이고, ③의 '반짝이는'은 관형사절이다. 둘 다 수식의 기능을 한다.

15. 품사의 개념 파악,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 ㉡의 '밭게'는 형용사 '밭다'의 활용형이며, ㉢, ㉣의 '바투'는 부사이다. 따라서 ㉣의 표제어는 부사 '바투'이다. '바투㉠'의 뜻풀이를 고려해 볼 때 예문으로는 공간의 의미를 읽을 수 있는 ㉣이 적절하다. ㉢은 '바투㉡'의 예문으로 적절하다. '밭다㉠'의 뜻풀이를 고려할 때 예문으로는 ㉠과 ㉡이 모두 적절하다. 정답 ⑤

[16~20] 사회

[16~20] 사회, '계약의 개념과 법률 효과'

지문해설 : 이 글은 매매 계약 시 발생하는 양 당사자의 채권·채무 관계를 예시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계약은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 행위의 일종이다. 계약은 계약 당사자에게 일정한 청구권과 이행 의무를 발생시키는데, 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채권이고, 그에 따라 이행을 해야 할 의무가 채무이다. 이때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변제라 한다. 예를 들어, 을이 자신의 그림 A를 갑에게 매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자. 이럴 경우 을의 채무는 그림 A의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하는 것이고, 갑은 을에게 그림 A의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갑이 매매 대금을 을에게 지급한 상황에서 을의 과실로 불이 나 그림 A가 타 없어졌다고 하면 을의 채무는 이행 불능이 된다. 이럴 경우 을은 이행 불능이 자신의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갑은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여 그때까지 유효했던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다. 이렇게 계약을 해제하면 이전의 채권과 채무는 없던 것이 되므로 갑의 채권은 결국 을에게 주었던 매매 대금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된다.

[주제] 매매 계약 시 발생하는 양 당사자의 채권·채무 관계

16.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서 의사 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하여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들을 법률 행위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6문단에서 채무 불이행은 갑이나 을의 의사 표시가 작용한 것이 아니라, 매매 목적물의 소실에 따른 이행 불능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도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법률 행위가 없더라도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채권이라고 언급하였으며, 4문단에서 채권의 내용은 민법과 같은 실체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실체법에는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4문단에서 민사 소송법이나 민사 집행법 같은 절차법이 갖추어져 있어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절차법에 강제 집행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3문단에서 갑이 사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여 해결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며, 4문단에서 국가가 물리적 실력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의사에 구애받지 않고 채무의 내용을 실행시켜 채권이 실현되도록 하는 제도를 통해, 갑이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법원을 통하여 물리력으로 채권을 실현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5문단에서 그림 A의 소실이 계약 체결 전이었다면, 그 계약은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체결할 때부터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실현 불가능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무효라고 할 수 있다.

17. 내용들 간의 의미 관계 파악

정답해설 : 3문단에서 ㉠은 그림 A의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하는 것이며 물건의 소유권 이전 방식은 그 물건을 인도하는 것이라 하였으므로 ㉠에는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5문단에 따르면 그림 A의 소실로 ㉠은 이행 불능이 되었고, 6문단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매매 목적물의 소실에 따른 이행 불능으로 말미암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갑으로 하여금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하고 갑이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면 그때까지 유효했던 계약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된다. 이처럼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었으므로 7문단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은 결국 을에게 매매 대금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된다. 따라서 ㉡에는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3문단에서 을이 소유한 그림 A를 갑에게 매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였고, ㉠은 그림 A의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매수인인 갑은 매도인인 을에게 그림 A의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그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급하는 이행 의무를 갖는다. 또한 매도인인 을은 매수인인 갑에게 그림 A를 인도받을 대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그림 A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이행 의무를 갖는다. 따라서 ㉠은 매수인인 갑의 청

구와 매도인인 을의 이행으로 소멸한다고 할 수 있다. ② 6, 7문단에서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갑으로 하여금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 을에게 매매 대금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한다. 이때 ㉠을 성립시키는 채무 불이행은 갑이나 을의 의사 표시가 작용한 것이 아니라 매매 목적물의 소실에 따른 것인데, 이 경우에도 계약 해제는 을의 승낙 없이 갑의 의사 표시만으로 성립하며 이로써 갑은 원상회복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5, 7문단에서, ㉡은 그림 A의 소실로 이행 불능이 되고, 그 결과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과 채무는 없던 것이 되면서 ㉢이 성립한다. 따라서 ㉢이 이행되지 못한 결과로 ㉣이 발생한 것이다.

④ 2문단에서 채권과 채무는 발생한 법률 효과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다른 방향에서 파악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변제라 하고 있는데, 5문단에 따르면 그림 A의 소실로 ㉤은 이행 불능이 되었고, 그 결과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었다. 이처럼 계약이 무효가 된 상황이므로 ㉥과 ㉦은 동일한 계약의 효과를 서로 다른 측면에서 바라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18.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3문단에 따르면 을의 채무는 그림 A의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는 을의 과실로 인해 불이 나 그림 A가 타 없어졌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며, 6문단에 따르면 이처럼 매매 목적물의 소실에 따른 이행 불능으로 말미암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갑으로 하여금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 즉 계약 해제권을 갖게 한다. 따라서 ㉧의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을의 과실로 이행 불능이 되어 갑의 계약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한 ①번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을의 과실로 불이 나 그림 A가 소실되어 ㉧의 상황이 발생하였으므로, 갑이 소를 제기하더라도 매매의 목적이 된 동산인 그림 A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다. ③ 7문단에 따르면 원상회복 청구권은 계약으로 인해 이미 이행된 것이 있을 경우에 계약이 체결되기 전의 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는 권리이다. 을의 과실로 불이 나 그림 A가 소실되어 ㉧의 상황이 발생하였으므로 갑의 채권은 결국 을에게 매매 대금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될 뿐이지 갑은 그림 A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다. ④ 5문단에 따르면 ㉧의 상황은 을이 갑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은 뒤에 을의 과실로 불이 나 그림 A가 타 없어졌기 때문에 발생하였다. ㉧의 상황으로 인한 채무 불이행은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없다. ⑤ 5문단에 따르면 ㉧의 상황으로 인한 채무 불이행은 매매 목적물의 소실에 따른 이행 불능이며, 이행 불능이 채무자의 과실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면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을은 갑에게 그림 A를 인도할 수 없지만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할 수 있다.

19.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2문단에 따르면 계약에 따라 이행을 해야 할 의무가 채무이며, 변제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보기>의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줄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며, 증여자만 이행 의무를 지므로 변제의 의무는 증여자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증여는 매매와 마찬가지로 변제의 의무를 발생시킨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 따르면 매매는 매도인의 ‘팔겠다’는 의사 표시와 ‘사겠다’는 매수인의 의사 표시가 합치함으로써 성립하며, 양 당사자는 서로 권리를 행사하고 서로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놓이는 법률 행위이다. <보기>에 따르면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줄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며, 계약은 법률 행위의 일종이다. 유언은 유언자의 의사 표시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하며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킨다. 2문단에 따르면 의사 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하여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들을 법률 행위라 한다고 하였으므로 증여, 유언, 매매는 모두 모두 법률 행위로서 의사 표시를 요소로 한다고 할 수 있다. ② 2문단에 따르면 계약은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인 법률 행위의 일종이라고 하였는데, <보기>의 증여는 계약이므로 증여 역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보기>의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으므로 증여와 유언은 모두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1문단에서 매매를 하는 양 당사자는 서로 권리를 행사하고 서로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놓인다고 언급하고 있다. 반면 <보기>의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 즉 증여자만 이행 의무를 진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증여는 당사자 일방만이 이행한다는 점에서 양 당사자가 서로 이행하는 관계를 갖는 매매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보기>의 유언은 유언자의 의사 표시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하고 의사 표시의 상대방이 필요 없는 반면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줄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 따라서 증여는 양 당사자의 의사 표시가 서로 합치하여 성립한다는 점에서 의사 표시의 합치가 필요 없는 유언과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0.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의 문맥적 의미는 ‘처리나 결과로 이루어지거나 생기다.’이다. 이와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오랜 연구 끝에 만족할 만한 실험 결과가 나왔다.’의 ‘나왔다’이

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그 사람이 부드럽게 나오니 내 마음이 누그러졌다.’라는 문장에서 ‘나오니’의 의미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여 곁으로 드러내다.’이다. ③ ‘우리 마을은 라디오가 잘 안 나오는 산간 지역이다.’라는 문장에서 ‘나오는’의 의미는 ‘방송을 듣거나 볼 수 있다.’이다. ④ ‘이 책에 나오는 옛날이야기 한 편을 함께 읽어 보자.’라는 문장에서 ‘나오는’의 의미는 ‘책, 신문 따위에 글, 그림 따위가 실리다.’이다. ⑤ ‘그동안 우리 지역에서는 걸출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문장에서 ‘나왔다’의 의미는 ‘상품이나 인물 따위가 산출되다.’이다.

[21~26] 문학

[21-26] 현대 소설 - (가) 박태원, ‘천변풍경’ / 시나리오 - (나) 이범선 원작, 이종기 각색, ‘오발탄’

(가) 지문해설 : (가)는 1930년대 청계천 변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다양한 서민들의 생활상을 50개의 절로 나누어 서술한 세태 소설이다. 여인들의 집합소인 빨래터와 남성들의 사교장인 이발소라는 공간적 배경을 중심으로, 70명의 평범한 인물들을 모자이크식으로 제시하여 당시 사람들의 다양한 삶을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은 상이한 장소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여줌으로써 시간성과 공간성을 극대화하였고, 이를 통해 당시 서민층의 일상을 사실적이고 세밀하게 서사화하여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특정 인물을 확대해 보여주는 클로즈업 기법과 카메라가 이동하며 촬영하는 듯한 카메라아이 기법 등을 활용하여 주요 사건을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제] 1930년대 청계천 주변에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과 애환

(나) 지문해설 : (나)는 월남한 철호 가족의 비극적 삶을 통해 6·25 전후의 비참하고 혼란한 사회상을 그린 이범선의 소설 ‘오발탄’을 각색한 시나리오이다. 성실하지만 생계비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철호, 가난으로 인해 웃음을 잃어버린 철호의 아내, 돈을 위해서라면 윤리 의식마저 버릴 수 있다는 영호, 고향으로 돌아가자는 말만 반복하는 어머니, 양공주가 되어 버린 명숙의 삶은 전쟁으로 고통 받던 당대인의 비참한 현실을 고발하는 한편 전쟁의 폭력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주제] 6·25 전후 혼란한 사회 속에서 양심을 지키려다 패배하는 인간의 비극

21.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는 ‘도회에서의 패잔자’들의 내면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지 않지만, 이들이 낙향하는 모습을 ‘고개나마 변변히 못 들고 빠른 걸음걸이로’ ‘큰길로 나가 사라지는’ 행위로 드러냄으로써 자신들의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심리를 보여주고 있다. (나)의 #69에서는 철호가 아내를 보며 ‘저걸 저토록 고생시킬 줄이야’라고 말하는 것으로 볼 때, #70에서 ‘철호가 멍하니 시가지를 내려다보고’ 서 있는 행위에는 아내가 가난으로 인해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된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있음이 담겨 있다. #74에서 철호의 말에 반발하며 넥타이를 방구석에 집어던지는 영호의 행위에서도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그의 심리를 알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가)에는 인물 간 대결 의식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반면에 (나)에는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철호와 영호 간 대결 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가)와 (나)에는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특정 인물의 생각과 행동이 드러나 있기는 하지만, 인물에 대해 ‘어떤 인물의 외모나 성격, 또는 사건을 의도적으로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풍자’하는 ‘희화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③ (가)에서 서술자는 독자에게 과거에 발생했던 사건을 떠올리게 하고 있지만 특정 인물의 회상 장면은 드러나 있지 않다. (나)의 #70에서 철호가 과거 아내의 모습을 회상하고 있지만, 이를 사건 해결의 실마리로 삼고 있지는 않다. ④ (가)에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거나 살았던 곳을 떠나야 하는 이들의 서글픈 처지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인물 간의 갈등이 나타나 있지는 않다. (나)에는 철호와 영호 사이에서의 갈등이 그들의 대화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만 이러한 갈등이 다각적으로 조명되고 있지는 않다.

22. 인물의 성격, 태도 파악

정답해설 : ‘이발소 소년’은 천계천 변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을 꾸준히 관찰하던 인물로, 그는 신전 집 사람들이 이미 오래 전에 팔린 집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소식을 이발소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린다. 이처럼 ‘이발소 소년’은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여 그들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변화를 포착하는 인물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이발소 소년’은 특정 가족이 몰락하여 집을 떠나는 사실을 포착하기는 하였다. 하지만 (가)에서 그가 특정 가족이 몰락한 이유를 분석했는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③ ‘이발소 소년’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사건들을 포착하기는 했다. 하지만 (가)에서 그가 그 사건의 진위에 대해 논평했는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④ ‘이발소 소년’은 천변에서 벌어진 소식을 이발소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했을 뿐, 타 지역 주민에게 전해주었는지에 대해서는 드러나고 있지 않다. ⑤ ‘이발소 소년’은 천변에서 벌어지는 주민들의 소식을 살피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가)에서 그가 천변 사람들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를 중재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23. 서술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A]에서 서술자는 독자에게 신전 집 사람이 낙향할 것이라는 정보에 대해 이미 언급한 적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신전 집 사람이 낙향하지 못했던 원인을 독자가 그 정보를 잊었기 때문이라고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서술자는 “독자는 ~ 기억하고 계실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신전 집의 낙향에 대해 이미 독자가 알고 있는 정보를 상기하게 한 것이다. ② 신전 집이 낙향할 것이라는 정보를 제공한 인물이 ‘점룡이 어머니’였음을 환기시키고 있다. ③ 서술자는 ‘독자’가 이미 신전 집의 낙향에 대해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서술자가 자신을 드러내어 직접 작품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서술자는 신전 집 사람들이 떠나는 곳이 ‘강원도 춘천’이 아니라 ‘경기 강화’임을 밝히고 있다.

24. 작품의 종합적 이해

정답해설 : (나)에서는 철호와 영호 간의 대화를 통해 가족 간의 갈등 상황을 살펴볼 수 있으나, 명숙이 ‘집 밖에서 엿듣는 모습’ 자체만으로 가족 간의 갈등이 드러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에서는 ‘딸이 멀리 떠나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이쁜이 어머니’를 통해 가족 간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을 뿐, 가족 간의 갈등은 확인할 수 없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 ‘이쁜이 어머니’에게 ‘골목’이 짧게 느껴진 것은 딸과의 이별이 아쉽기 때문이다. (나)에서 택시가 빠져나오기 어려운 해방촌의 ‘골목길’은 영호가 살고 있는 동네의 열악함을 보여 주고 있다. ③ (가)의 ‘눈물’에는 딸을 떠나보내는 ‘이쁜이 어머니’의 슬픔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다. (나)에서 철호는 ‘어금니’가 푹푹 쑤시고 아프지만 당장의 생계가 걱정되어 어금니를 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어금니’에는 가족을 위해 자신의 아픔마저 견뎌내려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담겨 있다. ④ (가)에서 신전 집 사람들은 이십 년을 살아온 동네를 떠나야 한다는 주인 영감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를 통해 신전 집 사람들이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의 #72에서 철호의 아내는 만삭의 몸으로 누더기를 꿰매는 일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철호네 가족이 매우 가난한 처지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가)의 ‘도회에서의 패잔자’는 신전 집 사람들로, 그들은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고향으로 떠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들이 치열한 도회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나)의 영호는 적은 월급을 받기 위해 취직하기보다는 법을 벗어나는 행위를 해

보겠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 그가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물임을 짐작할 수 있다.

25. 서사 구조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70에서 철호가 침묵하는 것은 현실이 답답하기 때문이다. #71에서 택시 운전수와 대화를 하는 영호는 행동과 말에 거침이 없는 모습이다. 하지만 두 장면에서 나타나는 침묵과 대화는 상호 대비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 두 장면을 통해 영호가 소심하다는 점은 확인하기 어렵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68에는 철호만 등장하는데, 이어지는 #69는 갑자기 철호의 아내가 등장한다. #69에 ‘철호㉔’를 삽입한 것은 철호의 아내를 바라보며 그녀에 대해 회상하는 이가 철호임을 알려주기 위해서이다. ② #69에 나오는 ‘철호㉔’ 뒤에는 철호의 아내가 행복하게 지냈던 과거의 장면이 제시된다. 따라서 ‘철호㉔’에는 비참하게 살고 있는 지금의 아내에 대한 철호의 연민이 드러난다. ③ #69는 ‘O.L.’을 통해 장면이 전환되는데, 시간은 바뀌었지만 ‘노래’를 활용하여 아내의 행복한 상태가 지속됨을 보여주고 있다. ④ #70에서 철호가 황홀한 도회지를 보며 침묵하고 있는 장면이 제시된다. 이때 도회지의 분위기는 그의 비참한 처지와 대비되는 것으로, 그의 침묵은 그가 자신의 처지에 대해 답답해하고 있음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26.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㉔에서는 시간의 흐름을 분할하여 신전이라는 공간이 변화하고 있음을 제시한다. 그러나 #75에는 변화되고 있는 대상이 드러나 있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㉔에는 자동차에 몸을 신는 ‘이쁜이’와 이를 바라보는 ‘이쁜이 어머니’ 사이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선택적으로 제시하여 딸을 떠나보내는 ‘이쁜이 어머니’의 슬픔을 보여 주고 있다. #71의 자동차에서 내린 영호가 #72의 방 안으로 들어오는 장면을 통해 영호의 공간 이동을 나타내고 있다. ② ㉔에는 같은 날 개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다른 사건이 일어났음을 밝혀 신전 집 사람들의 낙향 사건과 ‘이쁜이’가 집을 떠나는 사건을 연결하고 있다. #73과 #74는 공간은 다르지만 철호와 영호의 대화가 이어지는 설정을 통해 두 공간을 결합하고 있다. ③ ㉔에서는 서울 살림을 거두고 시골로 떠나는 집안을 선택적으로 제시하면서 그들에 대한 애달픈 감정을 서술하고 있다. #73~#75는 철호와 영호의 대화를 매개로 다른 공간이 연결되는데, #73에 등장하는 민호와 #75에 등장하는 명숙이 철호와 영호간의 대화 상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④ ㉔과 ㉔은 같은 날 개천 사이를 두고 발생한 사건이고 #74와 #75도 같은 날 방의 안과 밖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㉔과 ㉔은 서술자의 설명에 의해 두 사건이 연결되지만 #74와 #75은 철호와 영호의 목소리를 통해 사건이 연결된다.

[27~32] 독서

[27~32] 융합(인문, 과학), '서양과 동양의 천문 이론'

지문해설 : 이 글은 서양 우주론의 발전 과정을 지구 중심설에서 태양 중심설로의 이행으로 설명한 후, 서양 우주론의 영향을 받은 중국의 우주론의 전개 양상을 살펴보고 있다. 고대의 아리스토텔레스와 프톨레마이오스는 지구 중심설을 내세웠는데, 이는 지상계와 천상계를 대립시키는 형이상학적 관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코페르니쿠스가 내세운 태양 중심설은 케플러의 연구에 의해 그 정당성이 입증되었으며, 17세기 후반 뉴턴이 태양 중심설을 역학적으로 증명하여 만유인력의 실재를 입증하였다. 중국은 16세기 말부터 유입된 서양 과학의 영향을 받아 서양 과학과 중국의 지적 유산을 결합하여 우주의 원리를 파악하고자 했는데, 중국의 고대 문헌에 담긴 우주론을 서양 과학의 경험적 추론과 수학적 계산을 통해 재해석하고 확인하려는 경향이 19세기까지 주를 이루었다.

[주제] 서양 우주론의 발전과 이에 영향을 받은 중국의 우주론

27. 세부 정보 파악

정답해설 : 청 왕조가 1644년 중국의 역법을 기반으로 서양 천문학 모델과 계산법을 수용한 시헌력을 공식 채택하였고, 17세기 옹명우와 방이지는 실증적인 서양 과학을 재해석하여 독창적인 광학 이론을 창안하였으며, 17세기 후반 왕석천과 매문정은 서양 과학의 영향을 받아 우주의 원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는 내용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서양의 우주론의 영향으로 변화된 중국의 우주론이 소개되었을 것이라는 예측은 본문의 내용에 부합함을 알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서양 우주론의 지구 중심설과 태양 중심설의 개념이 2~4문단에 제시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서양에서 태양 중심설을 제기한 사람이 코페르니쿠스를 2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질문의 답이 제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④ 중국에서 서양의 우주론을 접하고 회통을 시도한 사람으로 17세기의 옹명우와 방이지, 17세기 후반의 왕석천과 매문정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중국에 서양의 우주론을 전파한 서양의 인물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다.

28. 세부 정보 파악

정답해설 : 케플러가 브라헤의 천체 관측치를 활용하여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의

운동 법칙들을 수립하였으므로 서양에서 경험적 추론에 기초한 우주론이 제기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중국에서도 왕석천과 매문정이 경험적 추론과 수학적 계산을 통해 우주의 원리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므로 경험적 추론에 기초한 우주론이 제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서양에서는 우주론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천상계와 지상계를 대립시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분법적 구도를 무너뜨렸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중국의 왕석천과 매문정은 옹명우 등이 성리학 같은 형이상학에 몰두하여 잘못된 우주론을 전개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으므로 우주론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형이상학적 사고에 대해 재검토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② 17세기 후반 왕석천과 매문정은 서양 과학의 우수한 면이 모두 중국 고전에 이미 갖추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서양 천문학이 들어오면서 중국에서 자국의 우주론 전통을 재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청 왕조가 1644년 중국의 역법을 기반으로 서양 천문학 모델과 계산법을 수용한 시헌력을 공식 채택하였으므로 중국에 서양의 천문학적 성과가 자리 잡게 된 데에는 국가의 역할이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④ 중국에서는 18세기 초를 기점으로 중국 천문학을 중심으로 서양 천문학을 회통하려는 입장이 공식 입장으로 채택되었다는 내용이 마지막 문단에 제시되어 있으므로 중국에서 18세기에 자국의 고대 우주론을 긍정하는 입장이 주류가 되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29. 생략된 정보 추론

정답해설 : 지구가 우주 중심에 고정되어 있고 다른 행성을 거느린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우주론을 주장한 브라헤는 코페르니쿠스 천문학의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과의 상충을 피하고자 했다. 따라서 브라헤의 우주론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에서 자유롭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주의 중심에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지구의 주위를 달, 태양, 다른 행성들의 천구들과, 항성들이 붙어 있는 항성 천구가 회전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항성 천구가 고정되어 있다고 보았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행성이 태양에서 멀수록 공전 주기가 길어진다는 점에서 단순성을 충족시킨 것은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론이 아니라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이다.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론이 행성이 태양에서 멀수록 공전 주기가 길어지는 것을 설명했다는 내용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없다. ③ 지구와 행성이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는 코페르니쿠스의 우주론은 지상계와 천상계를 대립시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분법적 구도를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따라서 코페르니쿠스의 우주론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과 양립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케플러는 우주의 수적 질서를

신봉하는 신플라톤주의에 매료되어 코페르니쿠스 천문학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신플라톤주의는 형이상학적 사고에 바탕을 둔 것이다. 따라서 케플러가 신플라톤주의에서 경험주의적 근거를 찾았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30.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성리학적 기론에 입각하여 실증적인 서양 과학을 재해석한 옹명우와 방이지는 중국 고대 문헌에 수록된 우주론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도를 견지하였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그들이 중국 고대 문헌의 우주론을 근거로 서양 우주론을 받아들여 새 이론을 창안하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옹명우와 방이지는 성리학적 기론에 입각하여 실증적인 서양 과학을 재해석하였으므로 자국의 지적 유산에 서양 과학을 접목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왕석천과 매문정 역시 중국 고전의 우주론을 서양 이론과 연결하였으므로 자국의 지적 유산에 서양 과학을 접목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중국 천문학을 중심으로 서양 천문학을 회통하려는 입장이 『사고전서』에 반영되었으므로 서양 천문학과 관련된 내용이 『사고전서』에 수록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③ 방이지는 성리학적 기론에 입각하여 실증적인 서양 과학을 재해석한 독창적 광학 이론을 창안하였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방이지가 서양 우주론의 영향을 받았지만 서양의 이론과 구별되는 새 이론의 수립을 시도하였다고 할 수 있다. ④ 매문정은 경험적 추론과 수학적 계산을 통해 우주의 원리를 파악하고자 했으므로 서양 과학의 수학적 방법론을 활용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는 고대 문헌에 언급된 증자의 말을 땅이 둥글다는 서양 이론과 연결하였으므로 중국 고대 문헌에 나타나는 천문학적 전통을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1.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보기>에 따르면 태양의 중심에 있는 질량이 m 인 질점이 지구 전체를 당기는 만유인력은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껍질들의 합계와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지구 중심의 질점을 당기는 만유인력과 같다. 지구 중심에 있는 질량이 m 인 질점이 태양 전체를 당기는 만유인력은 태양을 구성하고 있는 껍질들의 합계와 동일한 질량을 갖는 태양 중심의 질점을 당기는 만유인력과 같다. 지구 껍질들의 질량 합계는 태양 껍질들의 질량 합계보다 작고 만유인력은 질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한 질점이 m 으로 같다면 만유인력의 크기는 다르게 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밀도가 균질한 하나의 행성을 구성하는 동심의 구 껍질들이 같은

두께라면 반지름이 큰 구 껍질일수록 부피가 크기 때문에 질량도 크다. 만유인력의 크기는 두 질점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므로, 구 껍질의 반지름이 클수록 만유인력은 커진다. ③ 지구와 달 사이의 만유인력은 지구의 각 부피 요소와 달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의 합으로 구할 수 있다. <보기>에 따르면 지구의 한 부피 요소와 달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은, 지구의 한 부피 요소와 ‘달의 질량과 동일한 질량 m 을 갖는 질점’이 그 중심(달의 중심과 동일)에서 지구의 한 부피 요소를 당기는 만유인력과 같다. 나아가 이러한 ‘달의 질량과 동일한 질량 m 을 갖는 질점’의 중심과 질량이 M 인 지구 사이의 만유인력은, 마찬가지로 ‘지구의 질량과 동일한 질량 M 을 갖는 질점’이 그 중심에서 ‘달의 질량과 동일한 질량 m 을 갖는 질점’ 사이의 만유인력과 동일하다. 따라서 질량이 M 인 지구와 질량이 m 인 달 사이의 만유인력은, 그 거리가 동일할 때 질량이 M, m 인 두 질점 사이의 만유인력과 동일한 크기의 힘으로 서로 작용한다. ④ 태양을 구성하는 하나의 부피 요소와 지구 사이에는 만유인력이 작용한다. 지구는 무한히 작은 부피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태양을 구성하는 하나의 부피 요소와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은, 지구를 구성하는 모든 부피 요소들과 태양의 그 부피 요소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들을 모두 더해서 구할 수 있다. ⑤ ③과 같이, 반지름이 R , 질량이 M 인 지구와 지구 표면에서 높이 h 에 중심이 있는 질량이 m 인 구슬 사이에는 만유인력이 작용한다. 이때 지구의 중심과 구슬의 중심 사이의 거리는 $R+h$ 로 계산된다. 따라서 ‘지구의 질량(M)과 동일한 질점’과 ‘구슬의 질량(m)과 동일한 질점’ 사이의 거리가 $R+h$ 라면, 두 질점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은 지구와 구슬 사이에서 작용하는 만유인력의 크기와 같다.

32.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고안(考案)하다’는 ‘연구하여 새로운 안을 생각해 내다.’라는 뜻이므로 ‘고안했다’는 ‘~ 우주 모형을 만들었다.’의 ‘만들었다’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진작(振作)하다’는 ‘떨쳐 일어나다. 또는 떨쳐 일으키다.’라는 뜻이다. ②의 ‘일으킬’과 바꿔 쓰기에는 ‘발생시킬’ 또는 ‘야기할’ 등의 말이 적절하다. ③ ‘소지(所持)하다’는 ‘물건을 지니고 있다.’라는 뜻이다. ④의 ‘지닌’은 ‘본래의 모양을 그대로 간직한’의 의미로 쓰이므로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④ ‘설정(設定)하다’는 ‘새로 만들어 정해 두다.’라는 뜻이다. ⑤의 ‘여겼다’는 ‘마음속으로 그러하다고 인정하거나 생각했다.’의 의미로 쓰이고 있으므로 ‘간주했다’ 등으로 바꾸어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⑤ ‘시사(示唆)되다’는 ‘어떤 것을 미리 간접적으로 표현해 주다.’라는 뜻을 지닌 ‘시사하다’의 피동 표현이다. ‘갖추어지다’는 ‘있어야 할 것을 가지거나 차리다.’는 뜻을 지닌 ‘갖추다’의 피동 표현이므로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33~35] 문학

[33-35] 현대시 - (가) 유치환, '출생기' / (나) 김춘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가) 지문해설 : (가)는 일제의 강점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대의 암울함을 화자의 출생 내력과 연관 지어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작품의 시간적 배경이 되는 융희 2년(1908년)은 실제 시인이 태어난 해이자 일제에 의해 우리나라가 강점이 된 1910년을 2년 앞둔 해이기도 하다. 시인은 이런 시대적 암울함을 '검정 포대기', '까마귀 울음소리', '부엉이'의 괴괴한 울음, '희미한 등잔불', '신월'과 같은 어둡고 음산한 이미지를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암울함은 지붕 위에서 남풍에 자라고 있는 '박년출', 푸른 하늘에 피 뻗은 듯 피어 있는 '석류꽃'과 같은 생명력 넘치는 자연의 이미지와 대비됨으로써 더욱 부각되고 있다.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에 죽음을 떠올리고 명을 걱정해야 하는 시대적 암담함을 감각적이고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작품이다.

[주제] 출생의 내력과 일제 강점이 현실화되는 시대적 암울함

(나) 지문해설 : (나)는 시인이 초현실주의적인 화풍으로 유명한 샤갈의 그림 <나와 마을>을 보고 영감을 얻어 창작한 작품으로, 봄의 맑고 순수한 생명력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 시는 다양한 사물의 이미지를 병치시킴으로써 시적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다시 말해 봄을 바라고 섰는 사나이의 '새로 돋은 정맥'이 바르르 떠는 이미지를 통해 봄의 생동감을, 하늘에서 수천수만의 날개를 달고 내려와 샤갈의 마을의 지붕과 굴뚝을 덮는 '눈'의 이미지와 아궁이에 지퍼지는 '불'의 이미지를 통해 삼월의 포근함과 따뜻함을, 그리고 겨우내 말라 쥐똥만 해졌던 겨울 열매들이 '올리브빛'으로 물들어 가는 모습을 통해 봄의 생명력을 감각적으로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 이를 통해 봄을 맞이한 생동감과 고향 마을의 따뜻한 풍경에 대한 그리움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주제] 봄의 맑고 순수한 생명력과 고향 마을의 따뜻한 풍경에 대한 그리움

33.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해설 : (가)는 '융희(隆熙) 2년'이라는 시간과 관련된 표지를 제시하여 일제의 강점을 앞둔 1908년의 암울한 시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 (나)는 '삼월'이라는 시간과 관련된 표지를 제시하여 봄을 맞이하는 생동감 넘치는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가)는 '지니셨고', '읽으셨다', '지었다오' 등의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시적 화자의 출생과 관련된 서사적 사건을 들려주는 형식을 취해 전달하고 있지만, (나)는 ‘온다’, ‘판다’, ‘덮는다’, ‘지핀다’와 같은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삼월의 생명력 넘치는 풍경을 전달하고 있다. ③ (가)는 ‘검정 포대기 같은 까마귀 울음소리’, ‘괴괴히’, ‘상서롭지 못한’, ‘욕된’, ‘신월같이 슬픈’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시적 상황에 주관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나)는 삼월에 눈이 오는 샬의 마을의 풍경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묘사하고 있지만 ‘봄을 바라고 썼는’, ‘그해의 제일 아름다운 불’ 등의 표현을 보면 주관적 의미의 서술이 다소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가)는 ‘검정 포대기’, ‘까마귀 울음소리’, ‘괴괴히’, ‘어둔 바람’, ‘욕된 후에’, ‘곡성’과 같은 암울하고 비관적인 정서를 내포한 시어를 사용하여 비극적 상황을 고조하고 있지만, (나)는 ‘새로 돋은 정맥’, ‘눈’, ‘올리브빛’, ‘제일 아름다운 불’과 같은 따뜻하고 긍정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생명력 넘치는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⑤ (나)는 ‘새로 돋은 정맥’, ‘눈은 수천수만의 날개를 달고’ 등의 표현을 통해 자연물을 살아 있는 대상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가)는 특별히 자연물을 살아 있는 대상으로 묘사하고 있는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34. 시상 전개 방식에 대한 이해/표현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왕고못댁 제삿날 밤 열나흘 새벽 달빛을 밟고 유월이가 이고 온 제삿밥을 먹고 나서’는 화자가 태어난 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D]와 이어지는 행에서 화자를 ‘욕된 후에’로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D]의 서술이 출생에 대한 감격을 드러낸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검정 포대기 같은 까마귀 울음소리’에 청각의 시각화가 나타나며, 이는 암울하고 음산한 정서를 불러 일으켜 화자가 출생하던 시대적 상황의 분위기를 형상화하고 있다. ② 1연에 제시된 시대 상황은 암울하고 음산한 것인데 반해, [B]는 남풍에 자라는 박년출, 피 뺀 듯한 석류꽃 등은 다채로운 계절의 풍경을 구체적으로 그려냄으로써 생명력 넘치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③ ‘나를 잉태한 어머니는~지니셨고’, ‘젊은 의원인 아버지는~읽으셨다’에서 대구 형식이 활용되어 화자의 출생을 앞둔 집안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⑤ 화자의 울음소리에 출생을 연상하게 하는 ‘고고’와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 ‘곡성’을 연결하고 있으며, 이 지점에서 ‘돌메’라는 화자의 이름이 명이 길었으면 하는 할머니의 바람을 담은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35.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하얀 ‘눈’ 내리는 ‘하늘’과, ‘눈’ 덮인 ‘지붕’, ‘굴뚝’은 흰색 혹은 회색과 같은 무채색 계열의 색감을 지니며, 이러한 이미지들은 모두 시각적 이미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밝고 화려한 색감을 공감각적 이미지의 풍경으로 변용했다는 ③의 진술

은 옳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보기>의 '샤갈의 초현실주의적 그림에 대한 감각적 인상을, 자신의 고향 마을에 투사하여'라는 구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샤갈의 그림에 나타난 '올리브빛 얼굴을 가진 사나이'나 '당나귀'와 같은 이질적 이미지의 병치가 (나) 시에 서는 '삼월에 눈', '봄을 바라고 섰는 사나이', '새로 돋은 정맥'과 같은 다양한 이미지의 병치로 변용되어 봄의 생동감을 형상화하고 있다. ④ 그림 속 '올리브빛'의 이미지는 사나이의 얼굴에 나타난 것인데, 시인은 '올리브빛'을 봄의 이미지와 연결하여 '겨울 열매들'이 그렇게 물든다고 하여 생동감 넘치는 봄의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다. ⑤ '아낙', '아궁이'는 샤갈의 그림에는 존재하지 않는 우리의 전통적 이미지로, 시인은 이를 통해 그림 속 풍경에 대한 감각적 인상을 시인의 고향 마을을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로 전이시키고 있다.

[36~38] 문학

[36~38] 고전 소설 - 작자 미상, '임장군전'

지문해설 : 이 작품은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역사적 인물인 임경업 장군의 영웅적인 일생과 비극적 죽음을 그려 낸 역사 군담 소설이다. 청나라에 대한 강한 적개심, 무능하고 사리사욕에 치우친 당대 집권층에 대한 분노를 형상화하고 있으며, 병자호란의 역사적 치욕을 문학적으로 보상받으려는 당대 민중의 심리가 반영되어 있다. 특히 영웅적 승리로 귀결되는 대부분의 군담소설과는 달리 임경업 장군의 불행한 결말을 보여 주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주제] 임경업 장군의 충의 정신과 비극적 죽음

36. 서술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경업은 거짓 조서를 꾸민 자점의 흉계로 인해 옥에 갇혀 고통을 당하게 된다. 경업은 전옥(典獄) 관원을 통해 자점의 흉계를 알고 옥문(獄門)을 깨치는데 여기에서 스스로의 힘을 발휘해 옥문을 나오게 된다는 점에서는 초월적 능력을 일부 드러내나, 적대자인 자점과 지략 대결을 벌이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경업은 자점의 흉계로 인해 다시 옥에 갇히게 되고 결국 경업은 자점에게 매를 많이 맞아 죽게 된다. 이 장면에는 경업의 지략이 특별히 나타나지 않으며 경업의 초월적 능력도 드러나지 않는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자점의 역심을 밝혀 자점을 물리치려는 경업과 경업을 해치려고 흉계

를 부리는 자점의 대립을 통해 이야기에 대한 독자들의 흥미를 높이고 있다. ② 이 작품은 주인공인 경업이 자점에게 매를 많이 맞아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결말을 통해 작품의 비극성을 높이고 있다. ③ 경업이 옥문을 나와 상을 뵙고는, 무인년에 북경에 잡혀가다가 중간에 도망한 일이며, 명과 함께 호왕을 베고 병자년의 원수를 갚고 세자와 대군을 모셔 오려고 했던 일, 그 와중에서 간인에게 속아 북경에 잡혀 갔다가 살아 돌아와 의주에서 잡혀 있던 일 등을 상에게 아뢰는 데서 대화의 내용을 통해 이전에 일어난 사건의 정황을 나타내고 있다. ④ 경업을 죽인 악인인 자점이 상에게 역심을 품은 일을 자복하여 그 삼족까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징벌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착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징계하는 권선징악의 세계관을 드러내고 있다.

37.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 경업은 상의 꿈에 나타나 ‘흉적 자점이 소신을 죽이고 반심을 품어 거의 일이 되었’다고 아뢴다. 이에 상은 놀라 자점을 국문하고 자복을 받은 뒤, 경업의 자식을 불러 ‘너희 아버지가 자결한 줄’ 알았더니 ‘자점의 모해로 죽었다’고 말하며 원수를 갚으라고 하교한다. 이를 볼 때 상은 꿈에 나타난 경업의 말을 듣고 자점을 다시 국문하여 자복을 받아내 역심을 품은 일과 경업을 모해한 일을 밝혀내었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경업은 자점이 꾸며낸 거짓 조서로 인해 옥에 갇히는데 강직한 전옥(典獄) 관원이 경업을 불쌍히 여겨 이 사실을 경업에게 말한다. 이를 통해 경업이 자점의 흥계를 알게 되므로 옥에 갇히기 전부터 경업이 자점이 거짓 조서를 꾸민 흥계를 알고 있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② 옥졸은 옥에 갇힌 경업이 목이 말라 물을 찾는 데도 자점의 부탁으로 물도 주지 않는다. 하지만 옥졸이 자점의 부탁으로 경업의 죄를 상에게 밀고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대군은 경업이 궐내로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시자(侍者)에게 경업의 거처를 묻는다. 이에 시자가 모른다고 하자 의심하여 바삐 입궐을 하게 된다. 대군이 자점의 흥계를 의심한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으나 경업의 거처까지는 알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경업을 만나 옥에 갇힌 경위를 물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④ 우의정 이시백은 절도(絶島)에 안치된 자점이 반심을 품는 등 불측지심이 나타나자 이를 상에게 아뢴다. 우의정 이시백이 경업이 옥에 갇힐 만한 정보를 상에게 제공했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38. 감상의 적절성 파악

정답해설 : [A]는 경업이 자점의 흥계로 심복들에게 난타를 당하고 다시 옥에 갇혀 금부로 잡혀가는 내용이다. ⊕은 자점의 흥계로 경업이 박살나서 죽음을 당한 일

대한 평민층의 안타까움을 나타낸 필사기라고 할 수 있다. [A]를 읽은 평민층은 ㉔을 통해 경업을 고통에 빠뜨리게 한 자점의 행동을 비판한다고 할 수 있지만, 자점의 행위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A]와 ㉔을 고려할 때, 평민층이 연민을 드러내는 대상은 자점의 행위로 인해 시련을 겪고 있는 경업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B]는 경업이 자점으로 인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내용으로, 이를 읽은 식자층은 ‘대역 김자점의 소행이 혐오스럽다’는 ㉑에서 자점의 행위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리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② [A]는 경업이 자점의 흥제로 심복들에게 난타를 당하고 다시 옥에 갇혀 금부로 잡혀가는 내용으로, 이를 읽은 식자층은 ‘잡혔으니 가히 아프고 괴로우며 애석’하다는 ㉒에서 경업의 시련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③ [B]는 경업이 자점으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되는 내용으로, 이를 읽은 평민층은 ‘임 장군’이 ‘남의 손에 죽’는 것이 ‘천운’이라며 숙명론적 반응을 보이는 ㉓에서 자점의 손에 죽은 일에 대해 자점을 비판하면서도 경업의 죽음에 대해 운명론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⑤ [B]는 경업이 자점으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되는 내용으로, 이를 읽은 평민층은 ‘동국충신의 말임에 혹 만민이라도 깨달아 본받게’ 하는 것이라는 ㉔에서 경업과 같은 충신의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39~42] 독서

[39~42] 인문, ‘가능세계의 개념과 성질’

지문해설 : 이 글은 일상 언어의 진술을 분석하고 철학 분야에서 흥미로운 질문과 통찰을 이끌어 내는 데 기여하고 있는 가능세계의 개념과 성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가능세계는 일상 언어의 진술 내용이 가지고 있는 필연성과 가능성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가능세계 중 현실세계와의 유사성 정도와 관련하여 일상적 표현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한편 가능세계는 일관성, 포괄성, 완결성, 독립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철학은 물론 인지 과학, 언어학, 공학 등의 분야로 널리 응용되고 있다.

[주제] 가능세계의 개념과 성질

39.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4문단에 제시된 가능세계의 성질 중 완결성에 대한 설명에 따르면, 어느 세계에서든 임의의 명제 P에 대해 “P이거나 ~P이다.”라는 배중률이 성립한다. 그러므

로 배중률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문단에 따르면 필연적이지는 않은 명제는 우리의 현실세계를 비롯한 어떤 가능세계에서는 성립하지만 어떤 가능세계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라는 명제나 “다보탑은 개성에 있다.”라는 명제 모두 필연적이지는 않지만 가능한 명제인데, 전자는 우리 현실세계에서는 성립하는 데 비해, “다보탑은 개성에 있다.”는 우리 현실세계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가능한 명제는 현실 세계에서 성립한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③ 2문단에 따르면, “만약 Q이면 Q이다.”를 비롯한 필연적인 명제들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 그러므로 필연적인 명제가 성립하지 않는 가능세계가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1문단에서 P와 ~P가 모두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법칙을 ‘무모순율’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무모순율에 의하면 P와 ~P가 모두 참인 것은 가능하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3문단에서 전통 논리학에서는 “만약 A이면 B이다.”라는 형식의 명제는 A가 거짓인 경우에는 B의 참 거짓에 상관없이 참이라고 규정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즉, A의 거짓임이 “만약 A이면 B이다.”를 참인 것으로 만든다. 그러므로 “만약 A이면 B이다.”의 참 거짓은 A의 참 거짓과 상관없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0. 내용들 간의 의미 관계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 따르면 “만약 Q이면 Q이다.”를 비롯한 필연적인 명제들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 “만약 다보탑이 개성에 있다면, 다보탑은 개성에 있다.”라는 명제도 “만약 Q이면 Q이다.” 형식의 필연적인 명제이므로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 따라서 이 명제가 “성립하는 가능세계”란 모든 가능세계를 말한다. 그런데 2문단을 통해서 가능하지만 필연적이지는 않은 명제는 어떤 가능세계에서는 성립하지만 어떤 가능세계에서는 성립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은 필연적이지 않은 명제이므로 어떤 가능세계에서는 성립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이 거짓인 가능세계는 없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는 가능하지만 필연적이지는 않은 명제라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 명제는 어떤 가능세계에서는 성립하고 또 어떤 가능세계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 1문단에 따르면, ㉠과 ㉡은 모순관계가 아니다. 즉, 둘 다 참인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 참인 경우에는, “다보탑은 개성에 있지 않다.”도 반드시 참이 된다. 그러므로 “다보탑은 개성에 있지 않다.”와 ㉡이 둘 다 참인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둘은 모순 관계가 아니다. ④ 1문단과 2문단의 내용에 의하면, ㉡은 다보탑이 개성에 있는 가능세계가 존재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 거짓이라는 것은, 다보탑이 개성에 있는 가능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된다. ⑤ ㉠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라는 명제와 ㉡ “다보탑은 개성에 있을 수도 있었다.”라는

명제가 모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1문단의 정의에 따르면 모두 참이거나 모두 거짓인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다보탑이 경주에 있는 우리 현실세계에서는 모두 참일 수 있다.

41. 인과 관계, 상관 관계 추론

정답해설 : 기차를 탄 가능세계들 중에는 기차가 제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해 여전히 지각을 하는 세계와, 기차가 제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해 지각을 하지 않는 세계가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3문단에 따르면, 이러한 가능세계 중 후자가 전자보다 더 유사성이 높다고 했으므로 ③의 진술이 ④에 대한 답으로 적절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② 3문단의 내용을 고려할 때, ④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내가 그 기차를 타지 않은 가능세계들끼리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기차를 탄 가능세계들끼리 비교하여야 한다. ④ 3문단은 현실세계와 가능세계 사이의 유사성의 정도를 비교해서 ④에 대한 적절한 답을 찾아야 함을 말해 준다. 그런데 내가 기차를 타고 지각을 하지 않는 가능세계의 개수가 많다는 것은 유사성의 정도와는 상관없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④에 대한 적절한 답이 될 수 없다. ⑤ ④에 대한 답변은 가능세계의 개념을 통해 제시되어야 한다. 내가 그 기차를 탄 것이 현실세계에서 거짓이라는 것은 ④와 같은 질문을 왜 하는지 이유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④에 대한 답변은 아니다. 따라서 적절한 답이 아니다.

42. 인과 관계, 상관 관계 추론

정답해설 :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라는 명제와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라는 명제는 반대관계이므로 <보기>에 따르면 둘 중 하나만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인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 두 명제는 둘 중 하나만 참인 것이 가능하다. 즉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가 참이거나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참인 것이 가능하다. 이 말은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 중 어느 하나만 참인 경우에도 성립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4문단의 가능세계의 포괄성에 대한 설명에 따르면, 어떤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세계가 존재하므로 위 주장이 성립하는 가능세계들이 존재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보기>에 따르면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는 모순 관계가 아니라 반대 관계이므로 배중률을 이야기할 수 없고, 따라서 완결성도 말할 수 없다. 더구나 완결성은 어느 가능세계에서나 P이거나 ~P라는 원리를 말하는 것이지 P인 가능세계가 있거나 ~P인 가능세계가 있다는 원리가 아니다. ② 4문단에 따르면, 가능세계의 포괄성은, 어떤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라는 명제가 성립할 때, 한 명의 학생이 연필을 쓰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그런 가능세계는 존재할 수 없다. ③ 배중률이 성립하려면 두 명제가 P와 ~P의 관계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라는 두 명제는 둘 다 참일 수 있기 때문에 모순 관계, 즉 P와 ~P의 관계에 있지 않다. 따라서 완결성을 논할 수 없다. ⑤ 학생들 중 절반은 연필을 쓰고 절반은 연필을 쓰지 않는 것은 가능하다. 그런데 그런 가능세계는 존재한다는 것은 일관성이 아니라 포괄성에 따라 나오는 것이다. 일관성은 어떤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성질이므로, 달리 말하면, 어떤 가능세계가 존재한다면 그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가능한 일이라는 뜻이다. 이 말은 어떤 가능세계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하지 않는다.

[43~45] 문학

[43~45] 고전 시가 - 김인겸, ‘일동장유가’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작가가 일본 통신사로 일본에 갔다가 이듬해 돌아올 때까지의 약 11개월에 걸친 여정과 견문을 기록한 장편 기행 가사이다. 조선을 출발하면서부터 일본에 도착하기까지의 과정은 물론, 일본의 여러 곳을 둘러보며 보고 느낀 바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기행 가사로서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일본의 문물, 제도, 풍속 등에 대한 사실적인 정보를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상황에 대한 묘사가 뛰어나, 조선 후기 기행 가사의 모범으로 일컬어진다. 제시된 부분 역시 일본으로 가는 배 안의 상황과 일본 선비와의 필담 상황을 제시하면서 기행 가사의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일본 방문의 여정과 견문

43. 표현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일본으로 가는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난 화자는 ‘성난 고래 동한 용은 물속에서 희롱하니’라는 표현을 통해 파도가 요동치는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동물의 역동성을 이용하여 풍랑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화자가 처한 상황이 매우 위태롭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공간적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바꾸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태산 같은 성난 물결’이라는 표현은 기상 상황이 악화되어 물결이

태산처럼 높이 솟구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③ ‘크나큰 만곡주가 나뭇잎 불리이듯’에서는 화자가 타고 있는 배를 나뭇잎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는 풍량을 만난 화자의 위태로운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④ 배가 물결에 따라 높이 올랐다가 다시 내려앉는 긴장된 상황을 ‘하늘에 올랐다가 지함에 내려지니’라는 표현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⑤ ‘필담으로 써서 뵈되’, ‘승산이 다시 하되’를 통해 ‘전승산’의 행동을, ‘내 웃고 써서 뵈되’, ‘놀랍고 어이없어 종이에 써서 뵈되’를 통해 화자의 행동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열거하여 두 사람이 필담을 나누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44.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은 풍량이 끝난 후에 배 방에서 밖으로 나온 화자가 눈앞에 펼쳐진 해돋이 풍광에 대해 평가한 것이다. 즉 ‘이런 구경’에는 해돋이 장관에 대한 화자의 감탄이 내포되어 있다. 한편 ㉡은 일본인 문인인 ‘전승산’이 ‘나’의 글 짓는 재주에 대해 평가한 것으로, ‘나’가 글 짓는 것을 보게 된 상황을 ‘장한 구경’이라는 표현으로 제시함으로써 ‘나’의 글솜씨에 대한 감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은 해돋이 풍광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므로 고난 극복의 의지와는 관련이 없다. ㉢ 역시 ‘나’의 글에 대한 ‘전승산’의 감탄을 담고 있으므로 고난 극복의 의지와는 관련이 없다. ㉣ ㉠은 해돋이를 구경하게 된 화자가 해돋이에 대해 표현한 것이고, ㉡은 ‘나’가 글 짓는 것을 보게 된 ‘전승산’이 감탄하며 한 말이므로, 둘 다 대상에 대한 솔직한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대상의 실체를 은폐하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은 화자가 자신이 직접 본 풍경에 대한 표현이므로 여기에 타인의 평가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에는 ‘나’의 글 솜씨에 대한 ‘전승산’의 평가가 담겨 있다. ㉤ ㉠은 해돋이 풍광에 대한 화자의 감탄을 담고 있으므로 대상에 대한 화자의 만족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 역시 ‘나’의 글 솜씨에 대한 ‘전승산’의 감탄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대상에 대한 화자의 아쉬움을 드러낸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45.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퇴석’은 이 작품을 지은 김인겸의 호이다. 제시문에서는 ‘전승산’이 화자의 글 솜씨를 보고 다른 사람에게서 전해 듣기만 하던 ‘퇴석 선생’이 바로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탄하고 있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B]의 ‘귀한 별호 퇴석’은 화자인 ‘나’를 지칭하는 것이고, [D]의 ‘소국의 천한 선비’는 ‘전승산’이 자기 자신을 낮추어 표현한 말이다. 즉 ‘귀한 별호 퇴석’과 ‘소국의 천한 선비’는 동일한 사람을 다르게 지칭한 것이 아니라 ‘나’와 ‘전승산’을 각각 지칭하는 말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A]는 '전승산'이 '나'가 글을 쓰는 것을 바라보게 된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를 통해 '나'를 알아본 '전승산'은 나에게 필담을 써서 보여주게 된다. 즉 [A]는 두 사람의 필담이 시작된 계기를 보여 주고 있다. ② [B]에서 '전승산'은 '나'의 글 솜씨에 대해 '빠른 재주'라고 표현하며 높게 평가하고 있고, [C]에서 '나'는 자신의 글을 '늡고 병든 둔한 글'이라며 겸손한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③ [B]의 '필담으로 써서 뵈되'는 '전승산'의 행위이고, [C]의 '내 웃고 써서 뵈되'는 '나'의 행위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처럼 '나'와 '전승산'은 필담을 통해 서로 묻고 대답하며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④ [D]에서 '전승산'은 '나'의 뛰어난 글 솜씨를 접하게 된 것을 '장한 구경'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나'에 대한 찬사를 보내고 있다. 한편 [E]에서 '나'는 '전승산'이 글 값으로 가져온 것들을 의(義)에 어긋난다며 거절하고 있다.